

사부대중께 드리는 말씀

세존께서는 교단이 발전하도록 하려면 자주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절집에 바보 셋이 모여 지극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면 무제를 잘 풀어내고 희망을 잘 만들어내는 문수보살의 지혜가 발현된다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의 길을 찾고자 마련한 대중공사에 함께 하신 사부대중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몇 일전 새벽 평소와 다르게 일찍 잠이 깼습니다. 제일 먼저 당면 과제인 대중공사가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나름 진심으로 바른 길을 찾고자 대중공사를 제안했지만 제 본의와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종단의 현실 풍토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디 한두 번 그랬냐.’ ‘그래봐야 소용없다.’라는 불신과 패배감의 목소리를 들으며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우리 종단의 하늘을 덮고 있는 저 불신과 패배감의 공업이 쌓이도록 하는데 일조했을 자신의 지난날이 대단히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만 저 불신과 패배감의 공업을 시원스럽게 녹여 내지 못한 총무원장 5년이 못내 아쉬웠고 사부대중들께 송구했습니다.

밝아오는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생각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는 장애물은 불신과 패배감의 공업이고 희망의 돛단배는 신뢰와 우정의 서원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저만치 길이 보였습니다. 서광의 빛이 제 가슴을 환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우리의 어제를 짓누르고 있는 불신과 패배감의 공업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광장으로 마

련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늘 길인 희망의 돛단배를 만들어낼 대장간의 광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우정의 도반인 사부대중 여러분 말고 그 누가 우리의 공업을 녹여내고 희망의 돛단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정의 공동체 종단의 지도자이신 사부대중 100인 위원 여러분.

저는 초발심 학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역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노력만으로 풀어내기엔 주어진 과제가 너무 막중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지혜와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큰 발심과 서원으로 오셨지만 또 다시 청합니다. 부디 뿌리 깊은 공업을 녹여내고 희망의 돛단배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탁마하고 탁마하겠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는 현종단과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두루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충분히 모시지 못해 대단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종단 공동체의 사부대중 대중공사 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지혜와 마음이 모여 불신과 패배감의 공업을 녹여내고 희망의 돛단배를 만드는 길이 마련되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끝으로 온 국민, 온 사부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절신한 마음으로 국민과 사부대중들께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청하면서 모시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기2559(2015)년 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손모음